가온고등학교
GA-ON HIGH SCHOOL

담화(澹話)

2021학년도 2학기 9월호

우리들의 담백한 이야기, 담화

가온고의 특별함, NIE 활동

가온고등학교에는 가온고만의 특색 활동이 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지식 함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특색 활동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 그중 단연 가장 특별한 것은 NIE(Newspapers in Education) 활동이다. 신문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가온고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1교시 수업을 하기 전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한 다음 신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거나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읽고 난 후, 그중 한 기사를 정해 그 기사에 관하여 자기 생각이나 느낀 점 등을 NIE 노트에 작성한다. 가온고에서는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자기 생각을 작성하는 활동인 NIE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학생들의 지식 함양과 독서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온고에서 실행 중인 NIE 활동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1년에는 전 세계 52개국이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NIE 활동의 효력을 인정하는 연구자료들이 존재한다. 미국 신문협회 재단의 NIE 디렉터 제임스 애벗은 "NIE는 학생들의 독서 능력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발행인인 보 존스에 따르면,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NIE 수업을 받은 학생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0~18% 높았다. 또한, 일본의 고교생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 테스트 및 의식조사 결과 신문 읽기와 학업성적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7년 보고도 있었다. 국어 성적 테스트 결과 신문을 즐겨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는 520.2점으로, 다른 매체 사용자가 획득한 점수(인터넷 516.4점, 책 · 잡지 503.6점, TV 503.3점)보다 높았다.

가온고 학생들에게 NIE 활동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매일 아침 NIE 활동을 위한 신문 읽기를 통해 기존의 학교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사에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 활동 이전에는 뉴스를 잘 보지 않던 학생들도 활동을 통해 신문을 읽으니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들을 알고 배운다. 평소 종이로 된 신문을 거의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지만 활동을 통해 종이에 쓰인 글을 읽는 것에 더 집중해서 독서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NIE 노트에 생각을 적는 활동까지 이어지기에 작문 능력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NIE 활동과 연계된 수업 활동도 전개하기에 그 효용이 더욱 극대화된다. 가온고에서는 국어 시간에 NIE 활동을 연계하여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의견 나누기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각자 흥미로운 기사들을 선택해서 자기 생각을 쓰고, 다른 학생들도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적는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 본인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좋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기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활동과 사회와 시사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NIE 활동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온고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시사와 사회에 대한 안목도 기를 수 있다. NIE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가온고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학생들이 NIE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기를 고대한다.

1209 박준형

2학기 초입의 주목할만한 행사, 과학 한마당

9월 17일 금요일까지 2021 가온고 창의 인성 과학 한마당 부스 운영 참가 신청이 진행되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와 탐구 보고서 양식을 2층 교무지원센터 유장표 선생님께 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wonbeens@korea.kr)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때 신청서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공학 5개 분야에서 하나의 실험 주제를 정해서 양식에 작성해 제출하고, 탐구 보고서는 실험 과정을 수행한 뒤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탐구 보고서는 원래 탐구 활동을 한 결과를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기 위함과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위해선 탐구 활동을 끝마쳐야 하기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과학 한마당 부스 운영 참가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 기준은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 개념과 실험설계능력에 중점을 두고 적절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공지되었는데, 각각 실내에서 체험이 가능한 활동인지, 유해 화학물질 및 폐수 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지가 적절성에 해당하게 되고, 기존에 많이 소개된 실험 활동이 아닌 새로운 활동이 포함되었는지가 창의성에 해당하게 된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장표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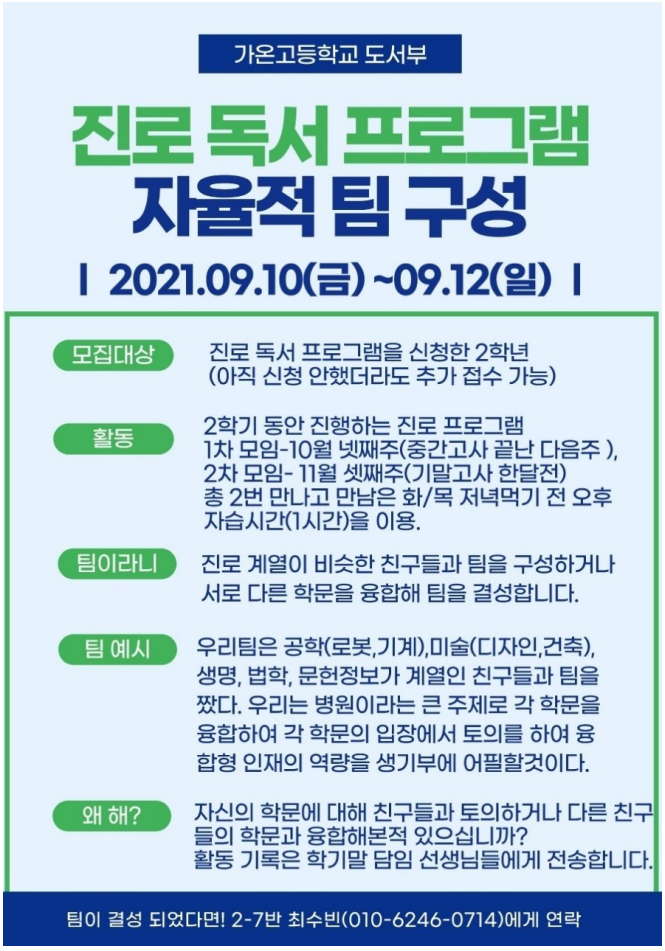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몇 번 나오지 못하고 1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등교 중에 학생들이 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이를 체험하는 행사는 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과학 한마당 행사로, 다른 학생들이 준비한 실험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대가 되며, 얼마나 많은 부스가 있을지,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는지, 그 체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물론 과학과의 행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코스워크, 학술제 등의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305 김연우

담화 9월호에서는

학교 소식……1~2
코로나19……3
경영……4~5
환경……6~7
과학……8
IT……9~10
예술……11
오피니언……12~14

2학기를 장식하는 도서부의 진로 독서 프로그램



가온고등학교 도서부의 진로 독서 프로그램 포스터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전국 학생들에게 큰 여파로 다가왔다. 각종 행사와 대회를 자랑으로 하는 가온고의 학생들에겐 더욱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일반적인 행사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던 온라인 수업은 이제 끝이 날 전망이다. 추석 연휴 이후 전면 등교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가온고 도서부에서 진행하는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가온고 도서부에서 2학기 동안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진로의 계열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팀을 구성하거나 서로 다른 학문을 융합하여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진로 독서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학생들과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라는 주제라면, 공학, 미술, 생명, 법학 등의 진로계열을 가진 친구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병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학문과 융합하게 하려는 도서부의 의도가 보인다. 이 활동은 융합형 인재의 역량 측면에서 생활기록부에 어필될 수 있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현대 사회와 대학에서는 유리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은 두 번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의 석식 전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10월 넷째 주에 1차 모임을, 11월 셋째 주에 2차 모임을 할 예정이다. 1, 2차 모임 모두 시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부담이 적은 기간이다.

가온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건 학생은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희망 분야가 언론 쪽이라서 언론 관련 공부만 하다 보니, 이공계열이나 예체능과 같은 희망 분야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분야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면 등교와 함께 진행되는 진로 독서 프로그램 활동기록은 학기 말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달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가온고 학생들의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활동으로 2학기를 장식할 수 있을까.

1212 신주환

수학 원리를 나눔 하는 곳, 2021 수학 나눔제 열리다

코로나로 활동적인 행사가 축소되어 아쉬운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풍부한 경험을 위해 다방면 에서 힘쓰고 있는 가온고에서 오는 9월 30일(목) ~ 10월 1일(금)부터 10월 5일(화) ~ 10월 6일(수) , 10월 7일(목) ~ 10월 8일(금)에 걸쳐 2021 수학 나눔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행사는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진행되며 우천 시 본관 1층과 2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수학 나눔제는 가온고 수학과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특별한 행사이다. 행사에 운영되는 부스는 지정된 주제로 운영되는 지정 부스와 학생들끼리 팀을 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한 자유 부스로 나뉘는데 각 부스에서 수학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 수학에 흥미가 없던 학생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수학적 원리를 깨닫고 평소 관심이 없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원래부터 수학에 흥미가 있던 학생이라면 더 많은 원리를 알아가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된 행사로는 매듭 이론을 이용해 팔찌를 만드는 파라 코드, 확률을 이용한 몬티홀 딜레마, 실생활 속 이용되는 테셀레이션, 종이를 접어 장난감을 만드는 Origami Modular (종이접기) 등이 있고 자유 부스 학생들이 준비한 새로운 행사도 기대해보아도 좋다. 매년 달라지는 활동 내용 들이 매년 학생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며 학생들을 참여로 이끌기도 한다. 모든 수학 부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런 준비물 없이 가온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만 갖춘 것이 아닌 수학적 사고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행사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2020년 수학 나눔제가 코로나 19로 인해 무산되어 아쉬웠을 학생들에게 이번 2021년 수학나눔제는 반가운 행사가 될 것이고 처음 나눔제를 경험하는 1학년 학생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참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협동심과 친밀감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름대로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나누는 행사이므로 함께 나눌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각 학년의 운영위원회들과 부스 운영위원들이 많은 회의와 고민 들로 구성된 행사임과 동시에 일 년에 한 번뿐인 행사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 있게 즐긴다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21 수학 나눔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행사 됨과 동시에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1107 김은서

새롭게 등장한 '위드 코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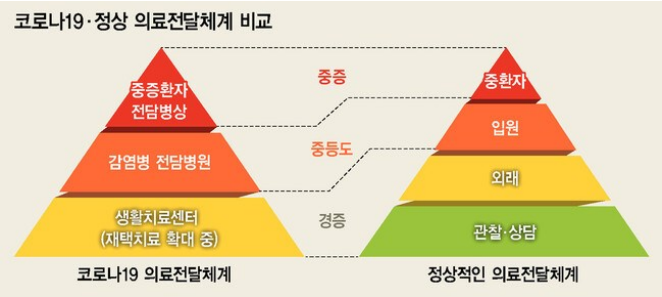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바이러스는 2년이 지난 2021년 9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단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약 2년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 생활에 적응해가고, 동시에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랜 방역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었던 어마어마한 비용과 의료·보건 계열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수를 줄이기보다 코로나19 확진의 치명률을 낮추는 다른 방향의 의료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의료체계란 바로 어떤 것일까.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확진자 추적은 유지하되 모임 인원 제한을 푸는 등 봉쇄 강도를 낮추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마스크처럼 꼭 필요한 방역 정책은 남겨둔 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차차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료 체계의 개편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확진자는 그 증세의 정도와 상관없이 확진되기만 하면 무조건 격리 시설에 갇히게 된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14일에 개최된 성공포럼에서 김윤 교수는 의료체계가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감염병 진료 중심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환자를 확진과 동시에 시설에 격리·입원시키는 방식이 지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과정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2년여간 정부에 코로나19 의료 체계를 줄곧 조언해온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감기 환자처럼 집에서 쉬다가 아프면 외래 진료를 받고, 더 아프면 입원 치료를 받는 일반적인 의료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지금 당장부터 정상적인 의료체계로 진행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국에서는 위중하지 않은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재택 치료를 권장 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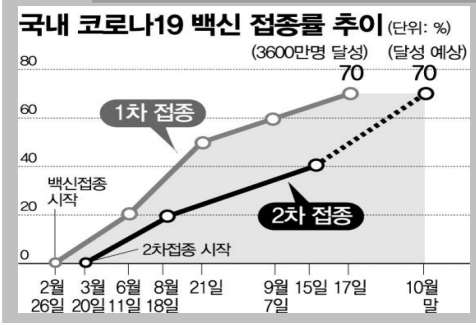
임 원장은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또한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증 환자,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는 것 대신 편안한 집에 머물며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고, 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 아닌 지역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위중한 환자의 경우 전담 병상을 만들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무리 전담 병원을 많이 지으려 노력한다 해도 지역적·경제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에게 충분한 양과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체계일 것이다.



비록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드는 지금이 방역 체계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확진자 수와 비교해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의 비율은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중증화율은 4.72%, 치명률은 2.7%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중증화율은 2.14%, 치명률은 0.29%로 줄었다. 또한 백신 접종률도 많이 증가하였다. 곧 코로나19와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216 이슬빈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70% 돌파,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갈등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 이는 전세계를 아울러 최단기간에 접종률이 70%를 달성한 것이다. 주요 국가별 1차 접종률 50%에서 70%까지의 소요 시간이 한국은 28일, 이탈리아는 75일, 영국은 118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접종률이 70%를 달성한 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17일 17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4,101명으로 전 국민의 70.1%, 18세 이상 인구의 81.5%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차 접종에 집중하여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앞당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소통 누리집에 접속해 보면, 백신 접종 여부를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70%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고민 중인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작용 가능성, 두 번째는 임신 계획, 세 번째는 물량이 부족하여 백신 접종 시기를 미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몇몇 직장 내에서는 미접종자를 '투명인간'이라고 칭하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부작용 하나 가지고 유난 떤다', '투명인간 아니면 우리 약속은 다음에 하자' 등의 말을 한다. 백신 미접종자를 은근하게 따돌리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강요를 하는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백신 접종을 강요 받는 기분', '부작용이 걱정되어 그런 것인데 눈총 받는 게 속상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백신을 왜 접종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백신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백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창구를 고안한다면, 정보 격차도 줄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백신 미접종자를 이해하고 부작용에 관한 나쁜 생각을 떨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1619 이선미

구글 OS갑질의 시대 끝… OS시장 숨통 트일까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내놓으면서 여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무료로 자사 OS를 사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포크 OS(기존 OS에서 변형을 한 형태)를 탑재한 기기의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불이익을 주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애플의 iOS를 제외하면 전세계 스마트 기기 시장의 대부분의 OS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정도로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구글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때문이다. 이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계약이다. 만약 자체 개발 OS를 탑재하여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구글의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최신 버전 소스코드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이것과 비슷하게, 앱스토어에서 A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어플을 해당 플랫폼에서 방출시킨 사례도 있다.

구글의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한 중국의 제조사는 자체 OS 개발을 시도하였지만, 파편화금지계약 때문에 아무도 포크 OS가 탑재된 기기의 생산을 하려하지 않아 결국 개발에 실패했다. 삼성에서도 갤럭시 기어에 탑재되는 자체 포크 OS를 제작하려고 하다가 구글의 협박으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게 구글은 글로벌 공룡 기업의 막강한 힘으로 OS 독점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드로이드 OS 갑질'로 구글에 2074억의 과징금을 내게 하였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자사 앱에서만 어플을 다운받아야만 했던 기존의 방식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올해부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구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자신들 만의 독자 OS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전에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에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번 제제가 유럽연합의 제재 사례와 다른 점은 그 징계 규모가 모바일, 스마트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로의 "구글 규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총 5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미국 상원에서도 위와 비슷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규제로 인하여 OS시장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1231 홍예진

빅테크 기업 문어발식 확장, 이제 정부가 막는다

2021년 9월 8일, 카카오와 네이버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금융위의 '빅테크'·'핀테크' 규제 시사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이 그동안은 '혁신'을 위해 빅테크와 핀테크에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금융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의 빅테크 규제를 밝힌 것이다. 그 결과 카카오, 네이버 주가의 8-10% 이상 폭락하는 등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결정에 찬반 여론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빅테크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 즉 IT 기업을 뜻하는 용어이다. 금융 관련 업계에서 금융서비스나 유사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거대 기술회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핀테크란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로 활용된다. 정부와 금융권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특성에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듯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수요자가 많아질수록 공급자인 빅테크 기업에게는 판매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 증가와 독점화는 가속화되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을 넘어 쇼핑, 택시 호출, 부동산 정보, 미디어 등 수많은 영역으로 일명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상권까지 범위를 넓힘에 따라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7일에는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합세했다.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긍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상자의 51%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독과점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이번 조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두를 지키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규제라는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향후 빅테크 기업의 존속을 두고 대한민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1207 박민준

담화 (澹話) 기고안

안녕하세요? 담화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온고등학교 학생자치신문 동아리 '담화'에서는
매달 학교 관련 기사와 학생 칼럼을 담은 신문 <담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담화에서는 항상 가온인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리 소개, 우리 학교 학생·선생님 인터뷰, 학교 행사 소개 등 *학교 관련 기사* 나,
사회,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기사, 칼럼* 들을
주소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곳 : yewon621@naver.com

키오스크조차 없는 매장...
완전 스마트 매장의 시대가 온다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신세계아이앤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마트24와 함께 손잡고 지난 9월 8일 '완전 스마트 매장'인 이마트24 코엑스점의 문을 열었다. 완전 스마트 매장이란 인공지능(AI), 각종 센서, 클라우드 등 첨단 IT를 활용해 100%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코엑스점에서는 소비자의 말을 통해 제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물건을 사는 과정 속에서 현장 직원과 접촉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해 수동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매장 입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꽂으면 입장용 QR코드를 전송받게 되고, 매장 입구에 QR코드를 찍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매장 내에는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 6대와 21대의 AI비전 카메라를 통해 매장 내 고객의 위치와 동선, 상품 변동 상황 등을 감지한다. 상품 진열대에는 무게감지센서(로드셀)가 있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몇 개 가져가는지 인식한다. 물건을 고른 후 매장 밖을 나가면 소비자가 입장할 때 인증했던 개인정보와 카드 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점포 내에는 신세계리테일 테크 브랜드인 '스파로스'가 보이는 스크린이 있어서, 매장 직원을 대신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파로스'를 부른 뒤 질문을 하면 제품 위치, 결제 방법, 신세계포인트 적립 방법 등 쇼핑과 관련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또한, '스파로스'는 고객이 집은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도 라이다센서를 통해 인식하여 "(제품명)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와 같은 경고를 하기도 한다.

실증 매장은 2년 전 선보인 이마트24 김포DC점보다 기술과 운영효율, 보안성 모두 고도화했다. 자체 개발한 라이다 기술을 통해 비식별 데이터를 보안해 보안성을 강화했고, 자동학습기술로 점포 운영 업무도 개선, 효율화됐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보와 지능화 물리보안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절도나 응급상황, 기물파손 등 매장 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매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점원도 계산대도 없는 무인 점포의 원조는 미국 유통 공룡 '아마존'의 '아마존 고'가 원조이다. 아마존은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 최초의 무인 점포를 선보였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AI)과 센서,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들고 매장에 들어간 뒤 물건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뤄지는 무인 점포의 표준을 만들어냈다. 미국에서는 현재 뉴욕 맨해튼에 8개, 시카고에 7개, 시애틀에 6개 등 모두 29개의 아마존고를 운영 중이다.

최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점포가 늘어나며 주인이 없는 점을 노린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원이 없어 키오스크를 통해 수동 결제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진열된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나아가 기계를 뜯어내 현금을 털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가 많이들 일어나 비행 청소년이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행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많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완전 스마트 매장이 더욱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후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 생활 속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역시 막을 수 있게 된다. 무인 매장은 단순히 신기한 매장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한 매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229 최지원

언택트 시대,
감성 자극 *'휴먼 터치'* 마케팅의 급부상

2020년 2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 마크 윌 포트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으며 이제는 '언택트' 생활 양식이 점점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알바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0.9%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으며, 사람들의 무기력감과 우울감도 점점 짙어져 이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절망과 암담함에 사로잡히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교류가 줄어들며 언택트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화적 고립 속 '휴먼 터치'를 활용한 감성 소통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인간미'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휴먼 터치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온기와 따스한 감성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기술 또는 마케팅을 일컫는 말이다.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언택트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휴먼 터치 마케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따뜻한 감성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 (디지털 패러독스, digital paradox)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휴먼 터치 기술과 마케팅을 통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가장 먼저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휴먼 터치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음악 플랫폼들은 오프라인 콘텐츠나 팟캐스트 등 전통적인 음악 스트리밍을 벗어난 콘텐츠 기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니뮤직은 전시회 내부에 지니뮤직 캡션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한 후 OST를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전시회를 진행했다. 음악과 작품을 함께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음원도 그냥 원하는 음악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골라 듣는 추세다. 이에 맞춰 지니뮤직은 큐레이터들의 음악에 얽힌 스토리와 설명이 곁들여진 음악 앨범을 공개하며, '감성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휴먼 터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중등 스마트홈 러닝 '아이스크림 AI홈런'을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에듀는 제휴 사업 강화 등을 통해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HTHT교육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학습 체제를 도입, 교사와 학생 간 연결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의력 및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방식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AI 생활기록부의 빅데이터 수집 분석, AI튜터-학생 실시간 소통, 주 1회 학습 선생님 등의 기술 기반 휴먼터치를 이용해 학생과 소통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내놓았다.

보수적 이미지가 강했던 금융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른의 맞춤법' 영상은 한 달여 만에 조회수 160만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 집 마련, 생활비, 이직 등 이른바 MZ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을 담담하게 녹여내면서 감성적인 음악을 곁들인 부분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NH농협은행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는 엄마가 딸의 모든 첫 날을 기념하며 입금한 농협 통장을 독립하는 딸에게 건네고, 딸은 엄마의 첫 모바일뱅킹으로 올원뱅크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다. 영상 '엄마와 딸'은 조회수 400만을 넘기며 휴먼 터치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1504 김규리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극복

최근 몇 년간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재앙은 기후변화이다. 화석 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온실가스 방출로 1880년부터 2012년도까지 133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0.85도 올라갔다. 과거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이상 변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북극의 얼음이 녹고,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6도 상승 시에는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첫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경제를 개발하는 것, 환경적 측면에서는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엔(UN)은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고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 행동, 깨끗한 에너지 등의 목표가 있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라고도 불린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대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 환경 영향 평가 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으며, 세계 각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협약 등을 맺어 협력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환경 보호를 위해 맺어진 국제적 협약으로는 교토 의정서,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바젤 협약 등이 있다. 이미 많은 나라가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시행하였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포용 사회 구현, 깨끗한 환경 보전, 경제성장과 지구촌 협력의 4대 전략을 세우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은 윤리적 소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1313 박신영

생분해 플라스틱, 이대로 괜찮은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재

완전히 썩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 플라스틱'이 떠오르면서 각 기업은 앞다투어 생분해 플라스틱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플라스틱 포장지, 비닐, 페트병과 같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일종의 소비 트렌드가 된 것이다. 각 기업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환경 단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그린워싱 (greenwashing), 즉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파는 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분해되지 못하고 소각된다. 원인은 놀랍게도 퇴비화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LA 플라스틱의 경우 60도 안팎 온도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분해되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또 제품의 생분해 도를 측정하는 국가 표준 규격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온도는 58도, pH 값은 7로 유지하고 어둡고 밀폐된 환경에서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는 가스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고 호기성을 띠는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당연하게도 까다로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반 쓰레기 매립지에 묻힌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결과가 없다. 생분해 플라스틱 전문 퇴비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문 시설을 갖추기에 국내에서 버려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양은 아직은 많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은 더 적을지 몰라도 매립하는 경우 완전히 분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작다. 우리가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쓰레기 매립지로 갈 것이다. 이곳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며 바다로 흘러 들어간 몇 개의 플라스틱은 늘 그렇듯 해양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결국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이나 다름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토양에서도 충분히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개발될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은 처리 방식의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허승은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친환경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소각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플라스틱 및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생분해',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1120 이지현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처리 기술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열분해 구역

플라스틱은 편리하다.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버려질 때 큰 악영향을 끼친다. 바다와 대지를 포함해 많은 플라스틱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섭취한 많은 생물들이 죽고, 먹이사슬 최상위에 위치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에 생산된 플라스틱이 지난 100년에 생산된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다.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바람이나 바닷물 등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하고 수중 생물에게 오염이 되는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

미세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막을 이용한 제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우 작은 크기 구멍이 뚫린 망들을 만들어 설치하고, 하수를 여과하면서 형성된 인공 화학물질을 이용해 하수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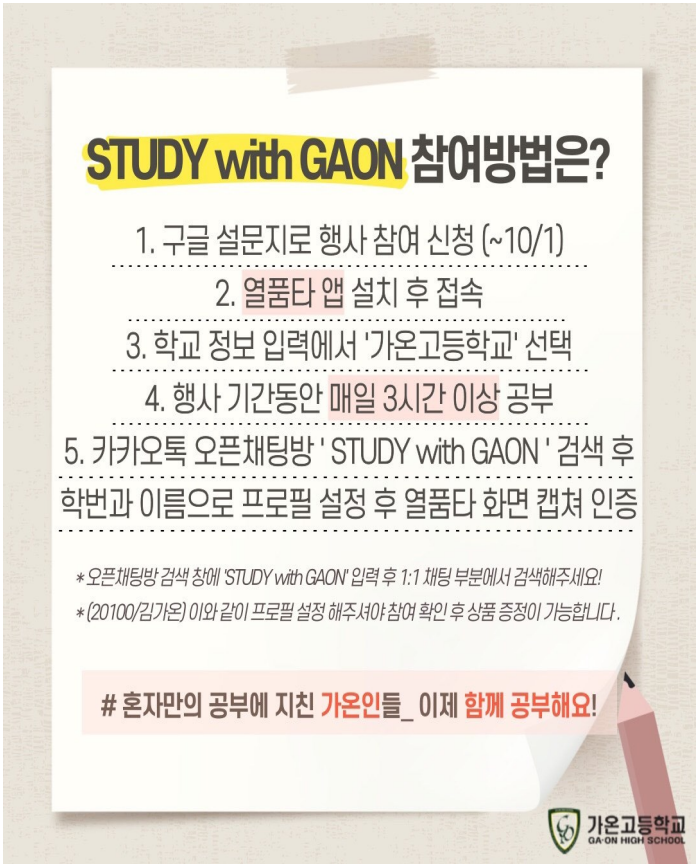
한편,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생물학적인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곰팡이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해를 실험해왔다. 곰팡이가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해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분비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세균, 곰팡이 등 일부 생물들은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원리로 처리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그 원리를 밝혀냈다고 해도 작은 미생물들이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은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열분해 기술도 있는데, 이는 온도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녹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온으로 가열할 시 미세플라스틱이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를 화학물질을 이용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석유 및 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소는 원료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강원도에서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플라스마 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수소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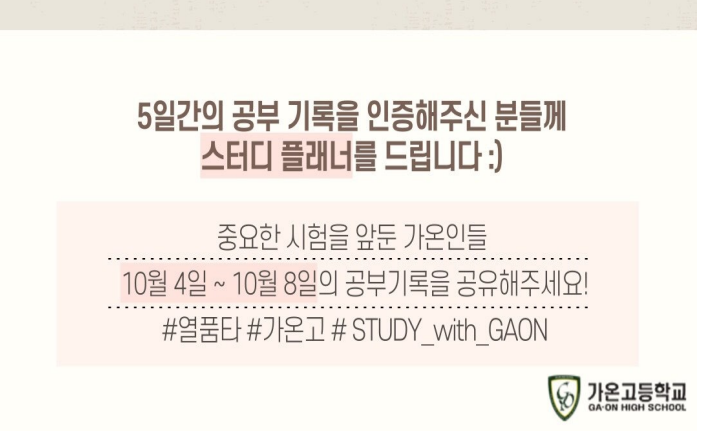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율성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으로 보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503 김준성

【학생회 행사 홍보 - STUDY with GAON】







올해 여름, 짧은 장마 후 늦더위 기승부리다



가을 장마로 인해 잠긴 벼

올해 여름의 날씨를 분석해보자면 짧은 '여름 장마' 후 무더위가 지속하였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장마는 '가을 장마'로 돌아왔다. 이러한 두 번의 짧은 장마는 농산물의 피해, 자연재해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 유난히 더웠던 2018년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갔다. 2018년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기단이 겹친 형태가 발견되었다. 올해는 겹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두 고기압이 한 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 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압력솥 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여 장마철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8월은 정체전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내렸다.

9월은 가을 장마가 시작되어 농업 종사자들은 골머리가 썩고 있다. 실제로 옛말에는 '가을 장마가 오면 곡식이 썩는다'는 말이 있다.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과일과 채소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을 장마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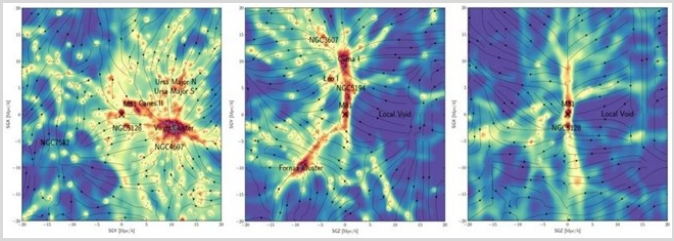
평년과 비교하여 장마 기간은 17일로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올해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23.7도)보다 0.5도 높은 24.2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약 2.4도 높은 26도로 크게 높았다.

올해 여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태풍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루핏'과 '오마이스' 두 개가 영향을 주었다. 지난 7월의 태풍은 개수가 적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태풍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기간은 유난히 짧았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폭염으로 인해 태풍이 비껴갔기 때문이다. 현재는 8~9월에 태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여름은 기후 변동성이 뚜렷했다. 기후 변동성이란 개개의 날씨 사건의 평균 상태와 기타 통계를 넘어서 모든 공간·시간 규모 상의 기후의 평균 상태와 기타 통계(표준 편차, 극값의 발생 빈도 등과 같은 것)에서 변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와는 다른 것으로 쉽게 말하면 기후 변동성을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본 것이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 변동성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후 변동성'이라고 답하였다. 참고로 올해 지난 1월은 2주간 무려 20도의 기온 차가 기록되어 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결국 기후 변동성으로 피해를 보았던 우리가 바로 기후 변동성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의식하고 환경을 더 보살펴야만 한다.

1613 송현지

AI가 그린 우주지도, 암흑물질 근거되나



한국천문연구원이 공개한 암흑물질의 분포지도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로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은하 주변의 우주 거대 구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이루어졌고, 우리은하에서 1억 광년 거리 내의 암흑물질의 밀도 분포를 예측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비해 3배 더 정밀한 암흑물질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하였기 때문인데, 이전의 지도보다 3배 이상 정확하게 암흑물질이 측정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이란 무엇이고 이토록 주목을 받는 것일까? 암흑물질은 우주의 26.8%를 차지하는 질량이 있는 물질로 추정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입자와도 상호작용을 하지도 않아 물질이 만드는 중력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미지의 물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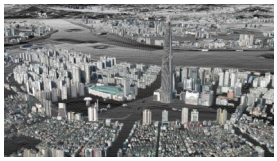
암흑물질 이론은 1933년 프리츠 츠비키라는 한 과학자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츠비키는 은하단에서의 은하의 운동을 관찰하고, 은하들의 이동 속도가 관측되는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는 물질 즉 암흑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은하 내 별들의 회전속도,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인한 중력렌즈효과, 빅뱅, 은하단의 질량 등 수많은 미지의 우주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이 있어 중력을 만들어내는 암흑물질이라는 물질이 있다'라는 이론을 적용하면 설명이 가능하기에 상당히 가능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토록 암흑물질 이론은 많은 현상에 관여되어 있는 중요성 높은 이론이지만, 사실 암흑물질은 직접적으로 관측되기는커녕 암흑물질의 질량조차 정확히 측정된 적도 없다. 지금도 암흑물질을 관측하거나, 암흑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을 찾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던 도중 한국천문연구원이 암흑물질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암흑물질로 구성된 은하와 은하를 연결하는 망인 우주망을 재현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데, 우리는 우주망을 분석함으로써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진화할지를 알려주는 우주 팽창 모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에 단순한 연구 이상으로 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연구하는 것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최근의 누리호 발사,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천문학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상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213 안도현

메타버스의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포스터 (좌)
Virtual Seoul (버추얼 서울)의 3D 모델 이미지 (우)

지난 2018년 개봉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는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숨어있다. 이 영화는 '오아시스'라는 3차원 가상게임 속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핵심 과학기술이 바로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meta(메타)와 '우주',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이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뜻을 가지는 개념이다.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로, 실존하지 않는 그래픽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속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은 현실과 거의 흡사하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2003년 린든 랩에서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가 흥행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초고속 • 초연결 • 초저지연의 5G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확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었고, 비대면과 온라인이 필수가 된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메타버스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 ASF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로 나뉜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여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로, 가상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특징을 지닌다. 몇 년 전 크게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바로 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라이프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는 메타버스이다. 스마트 워치처럼 달린 거리, 소비 열량 등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사진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울세계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구현하되, 정보 제공 측면에서 확장된 메타버스를 말한다. 인공위성의 사진을 수집하여 지구의 모습을 업데이트하는 구글어스, 네이버랩스가 서울시 전역을 3D화 해서 만든 Virtual Seoul 등이 있다. 해당 공간의 모습을 3차원 모델로 구현한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조량이나 주변 교통 흐름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이다. 흔히 캐릭터나 아바타라고 부르는 존재를 매개로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며, 현실과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온라인게임에서 생활형 가상세계까지 3차원 컴퓨터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배제하고 다양한 상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버스 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다양해지고 커질수록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도박,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어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여 가상세계 중독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메타버스를 우리의 현실에 적절히 도입하여 그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련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메타버스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과 메타버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렇듯, 편익이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 메타버스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시장 형성과 발전 단계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정책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선사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허황된 개념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로 안전성이 보장된 메타버스가 사회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줄 것인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1206 김예지

빅데이터로 뉴스를 분석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의견들을 수집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언론 정책이나 시스템 알고리즘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언론재단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 -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운영을 추진했다. 빅카인즈에서는 다양한 언론사들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받아지고, 곧 빅데이터화된다. 2013년에 만들어진 '뉴스소스베타'가 빅카인즈 개발의 토대가 되었고, 후에 언론재단이 자연어 처리 전문 업체인 솔트룩스의 도움을 받아 기타 필수 기능들을 강화하여 2016년 4월 19일에 공개했다.

빅카인즈는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이 구분되어 있다. 일반인용은 뉴스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림과 관계도를 그려 보여준다. 전문가용인 '빅카인즈 프로'는 언론인과 연구자 등에게 제공되는 기능으로, 직접 자료를 내려 받아 분석할 수 있다. 택사노미(Taxonomy)라는 기능이 일반인용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단어 사전이라 볼 수 있다.

언론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뉴스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심층 기사 발굴 및 데이터저널리즘 구현과, 기존의 단순 뉴스 검색에서 더 진보한 새로운 뉴스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이 사업 목적이라고 한다. 왜곡된 뉴스 유통 환경에 따른 콘텐츠의 저품질화 및 가치 하락 현상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빅카인즈는 형태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이형동의어를 사전 형태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고, 여러 부문의 지식 베이스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 수집하여 공공데이터에 연계하기도 한다.

빅카인즈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논문도 계속해서 집필 되고 있다. 언론재단 소속의 빅데이터 팀은 2019년 10월 30일에 '빅카인즈 활용사례 수기 공모'를 열기도 했다.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뉴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이용자 수 증가를 유도한 것이다.

언론재단의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텍스트 뉴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뉴스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 보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기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2612 유이서현

아이돌 팬 사인회, 3차원 가상세계에서?



블랭핑크는 지난 2020년 9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블랙핑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팬 사인회를 열 수 없게 되자 2억 명의 회원을 가진 제페토(ZEPETO)에서 가상 팬 사인회를 열었다. 제페토에 접속한 세계 각국의 팬들은 가상공간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을 만나 인증샷을 찍고 가상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둘러보며 블랙핑크 콘서트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겼다.

이처럼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서비스 중 하나인 '로블록스'는 올해 1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421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이 플랫폼에 머무른 시간이 무려 97억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가상공간인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

사실 메타버스는 2000년대 초반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다. 세컨드라이프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한 높은 자유도로 인기를 모았다. 당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컨드라이프의 가상공간에 진출했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0년대부터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세컨드라이프는 빠르게 추락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형태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날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기술혁신이 크게 작용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하려면 그래픽, 통신, 클라우드, VR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5G를 비롯해 관련 기술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가상공간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를 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원격회의, 온라인 강의 등 언택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상황에 적응했다.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고, 메타버스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강력한 도구였다. 메타버스는 글과 사진으로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

메타버스 산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메타버스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25년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800억달러(약 3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조사업체 스태티스타도 2024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969억달러(약 340조원)로 예측했는데 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의 비슷한 시기 시장 규모 전망(약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실의 일부를 가상세계로 확장하고 이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개념이 자리잡아 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메타버스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1219 이치현

'슈퍼컴퓨터 10억년 걸리는 연산을 100초 안에' 차세대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터

1981년 IBM과 MIT가 공동 개최한 '제1회 컴퓨터 물리학 콘퍼런스'에 세계 석학 50여 명이 참여하여 컴퓨팅과 양자물리학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96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는 "현재 0 또는 1이라는 확정값을 기반으로 계산해 결과를 내는 고전적(디지털) 컴퓨터로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자연(양자) 세계를 제대로 시뮬레이션할 수 없기에 양자역학의 원리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컴퓨터 연산방식을 기초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디지털 기술의 가운데에 있는 집적회로(IC)는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로 채워진 모듈로 구성되어있고, 트랜지스터는 이진법 기반의 비트(bit)를 기본 요소로 삼아 전자(electron) 등 정보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이자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제품이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되면서 반도체의 내부는 더욱 복잡해졌고, 앞으로의 발전 속도가 느려져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양자컴퓨터는 이와 달리 정보가 0과 1이 중첩된 양자 상태인 큐비트(qubit)로 존재하여, 값이 정해진 비트보다 더 많은 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장치에서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정보 처리량 및 속도가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 뛰어나다. 현대 컴퓨터로 10억 년이 걸리는 연산을 양자컴퓨터로는 100초 안에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세계가 양자컴퓨터를 AI 이후의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바라보는 이유다.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하는 2차 양자 혁명 속에서,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2019년, 존 마르티니스 미국 UC샌타바버라 교수팀과 구글 연구원들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문제를 200초 안에 풀 수 있는 53 큐피트 수준의 양자컴퓨터 칩인 '시커모어'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점으로 불리는 '양자 우월성'에 세계 최초로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공개했다.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 IBM은 2020년부터 65큐비트 수준의 양자컴퓨터 '허밍버드'를 시범 운용해왔으며, 올해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이글'과 433큐비트의 중급형 양자컴퓨터 '오스프리' 개발하고 2023년에는 최종적으로 1,000큐비트의 '콘도르'를 완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IBM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에서 이미 계획에 착수에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연구팀이 일정에 따라 성능을 발전 시켜 2023년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BM 연구소는 많은 양을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여 강력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는 AI 학습을 위한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더하여 고속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소모되는 전력이 기존 슈퍼컴퓨터의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복잡한 분자구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화학제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임상 효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 의료, 항공 우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1106 김서인

AI 기반 디자인 옷장, *"일상 속의 맞춤형 디자이너"*



최근 AI가 발전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AI 기술과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사례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옴니버스'라는 그룹이 패션쇼와 각종 컬렉션에서 선보인 패션 아이템들을 AI를 기반으로 분석, 추후의 패션키워드를 도출해냈으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상품들 중 AI를 기반으로 옷의 디자인을 분석해내는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2월, '룩코'는 '에이클로젯'이라는 AI 기반 개인 디자인 옷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7개월 만에 전 세계 18만 명이라는 사용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간 사용자 수 15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에이클로젯에 대해 개발자인 고혜신 룩코 대표는 "기존에 많은 디지털 옷장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었지만, 저희는 여기에 AI 기능을 더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했죠. 아직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에이클로젯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에이클로젯이라는 상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인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에이클로젯은 옷장에 있는 옷을 기반으로 쇼핑을 할 때 사야 할 옷과 사지 말아야 할 옷을 구분해준다. 또한, 옷장에 있는 옷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울리는 옷을 찾아 구매하거나 코디를 매칭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에이클로젯으로 자신이 원하는 코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착용할 수도 있고, 옷장에 있는 옷들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중복구매를 방지할 수도 있다. 옷들이 많아 관리하기 힘들 때, 알아서 옷들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인 셈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코디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옷을 직접 코디한 것을 볼 수 있어 맞춤형 디자이너 같은 편리함도 느낄 수 있다. 코디를 추천해줄 때에는 그날의 날씨, 옷 정보, 사용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룩코는 현재 에이클로젯이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쇼핑몰이나 패션사이트의 코디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220만 건 정도의 코디를 학습시켜 더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맛디'라는 회사는 'AI 기반 패션 스마트미러'를 개발했다. 이 상품은 부산 소재 쇼핑몰 '아트몰링'에서 처음 선보여졌다. 사용자의 코디를 분석하고 맞춤형 코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에이클로젯과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특징이라면 가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마트미러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의상의 종류, 패턴, 소재 등을 분석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탑재했다.

AI 기술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연계가 일어나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 출시 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향이 패션디자인 업계가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2104 김유진

요즘 트렌드는 업사이클링





스위스에 위치한 환경친화적 기업 프라이탁의 본사는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지어졌다.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지구가 시름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이상기온부터 얼마 전에는 적도에 있는 아프리카 카메룬에 눈이 오는 다소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친환경'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여기 이에 응답하는 여러 브랜드가 있다. 아모레 퍼시픽, 록시땅, 파타고니아, 네스프레소 등 많은 브랜드가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 많은 브랜드 중 '프라이탁'이 인기이다.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브랜드이다. 업사이클링이란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재고품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프라이탁은 마커스 프라이탁, 그래픽 디자이너인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1993년 설립한 가방 제조 회사이다. 이들은 비가 와도 스케치가 젖지 않게 할 만한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자 사업을 시작했다. 가방의 소재는 '타폴린'이라는 방수천, 자동차의 안전벨트,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 등 재활용 소재에서 얻었으며 반드시 일정 기간(방수천은 5년) 사용한 재료만을 사용했다. 제작공정에서 1년에 트럭 천막 200t, 자전거 튜브 7만5,000개, 차량용 안전벨트가 2만5,000개가량이 소요되고, 모든 제품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모든 제품은 개별적 디자인을 가진다. 가격은 20만~70만 원으로 고가에 속하며. 세계 350개 매장에서 연간 500억 원어치 팔린다.

버려진 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기에 희소성 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또한 애초에 튼튼한 가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데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누군가가 먼저 구매한다면 그 디자인의 가방을 구매하기 어렵다. 방수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고무 냄새가 있고, 가방이 커질수록 무겁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프라이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지만, 본점은 스위스에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프라이탁 플래그쉽 매장 겸 본사는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프라이탁의 지속 가능성의 강조를 알 수 있다. 컨테이너가 다소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예상될 수 있지만 새로운 건축 디자인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 여러 감각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가방부터 옷, 액세서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이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제작되고 판매되고 있다. 환경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환경친화적인 브랜드도 그만큼 이름을 알리고 있고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만 한 디자인과 각자의 매력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125 정윤미

D.P.로 재조명되는 군대

최근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D.P.(이하 DP)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인 '준호'와 '호열'이 활동하며 겪는 이야기를 풀어내 비군필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D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군대의 가혹 행위를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부조리를 겪은 많은 군필 남성들에게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불러오고 공감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곧 가게 될 미필 남성들과 그러한 남성들의 연인인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군대 내부에서 수없이 많은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집단의 폐쇄적인 특성상 외부에서는 가혹 행위에 대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없다. 국방부는 작품 내 가혹 행위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군 장병들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가혹 행위가 줄어들었으며 작품의 배경인 2014년에 비해 군 환경은 개선되었고, DP의 내용은 2000년대 중반의 군대의 모습을 극화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작품의 내용이 과장된 것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DP의 배경이 된 2014년은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이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따돌림을 받던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한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해이다. 또한 국방부가 DP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해군 일병이 가혹 행위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방부의 설명에 의심을 표하는 시선이 늘어났다.

DP에서 묘사하는 군인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부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처우에 대해 되돌아보게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복무 기간에 대해 '군캉스'(군대+바캉스)라는 말로 조롱을 일삼고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과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을 '군무새'(군대+앵무새)와 같은 혐오 표현으로 포괄하여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6.25 참전 용사가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를 일삼다 체포된 사례를 보며 사회 내에서 장병들의 대한 대우가 빈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처우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행기에서 군인에게 1등석을 양보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국민들을 매우 흔히 볼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시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처우로 인해 군인이 인기 직업에 꼽히기도 한다.

반면 DP의 캐릭터 '박성우'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고소득층이나 정치인 등의 권력자의 자녀가 군대를 가지 않는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과 군 내에서의 가혹 행위, 혹독한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군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뺄 수 있으면 빼라'는 말이 존재하는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의 처우와 인식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알 수 있다.

DP의 명대사 중 하나인 "하,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이라는 대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바뀌지 않는 분위기와 악폐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탈영하게 되는 장병들의 현실을 꿰뚫는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의 처우 개선과 군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205 김서휘

'위드 코로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새롭게 떠오른 용어가 있다. 바로 '위드(With) 코로나'이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종식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단 위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취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여 방역 정도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이미 타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 중이고, 우리나라 역시 위드 코로나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오가는 동안 국민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전해지며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시하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가 금방 완치되고,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해이한 모습을 보인다. 의학 보건 전문가들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경고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는 독감과 치료체계나 대응책이 달라 독감처럼 받아들이자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오해를 낳는 위드 코로나란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고 독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후유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에 감염된 감염자 100명 중 2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질 정도로 치명적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완치자의 53%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된 주 증상은 집중력 저하·인지기능 감소·기억 상실 19.9%, 우울 17.2%, 피로감 16.2% 등이다. 이 밖에도 미각 및 후각 상실, 어지럼증, 폐활량 감소,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 같은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농구선수 하승진 또한 코로나에 걸린 이후 후각과 미각을 많이 잃은 상황을 공개하였다. 위드 코로나 준비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드 코로나 실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율 8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바 있다.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독감처럼 위·중증 환자만 관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의 확진자 수는 하루 1,000명 이상으로 다시 코로나의 대규모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역 완화와 델타 변이로 인해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이 무색하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코로나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완료율이 늘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도 여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언론의 올바르고 정확한 안내 보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꾸리려는 움직임 정도로 인지하고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려는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1202 김다예

세균의 재발견



'날아라 호빵맨'의 세균맨

위 사진은 애니메이션 '날아라 호빵맨'의 등장인물 세균맨이다. 그의 검고 어두운 모습에서 우리가 세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세균(박테리아)에 눈살을 찌푸린다. 세균이 바이러스와 같지 않지만, 식중독, 결핵 등의 원인으로 인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특히 코로나 19로 이 견해가 더욱더 짙어졌다. 그러나 세균을 알면, 세균은 밉지만은 않은 존재이다. 성인 기준 몸 안에 2kg에 해당하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존재한다. 나쁜 균이 있는 만큼 좋은 균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균이 있기에 우리의 몸도 균형이 맞는다. 세균의 장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일부 세균은 살균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형성한다. 그것이 바로 박테리오신이다. 박테리오신은 그람양성 또는 음성 세균이 생성하는 단백질로서 천연 무독성 방부제 또는 천연 항균성 단백질이다. 박테리오신은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생합성을 하기에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는 데 쉬울 뿐만 아니라 더욱 우수한 박테리오신을 합성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먹는 공장 김치의 방부제 역할도 박테리오신이 맡고 있다. 이처럼 박테리오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존재인 셈이다.

또한, 세균의 도움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연구진은 호열성 고세균의 리보솜에서 특정 아미노산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호열성세균은 쉽게 말해 고온에서 서식하는 세균이다. 이 변이에선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아르지닌으로 변하였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초파리, 효모, 예쁜꼬마선충 등에 같은 변이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수명이 대략 15%까지 증가하는 유의미한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 외에도 호열성세균이 만드는 항생물질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한 만큼 바이오 연료, 화학 원료 생산 등에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유기성 폐수로 인한 오니를 줄일 수 있다. 오니란, 하천이나 호수 바닥의 퇴적된 오염된 흙이다. 이 오니를 감량하는 방안으로 오니의 비료 화, 사료화 등이 제시되었지만, 경제적 및 수요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호열성세균은 60~70°C에서 활발히 증식하여 가용화 효소를 생산해 오니를 용해한 실험 결과가 있다. 호열성세균을 활용하였을 때 80%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탄저균, 페스트균 등 인류 문명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균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만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포가 없었다면, 생명체의 기원은 10억 년이나 뒤늦게 발생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1113 박진성

언젠가 눈 앞에 다가올 '평화'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남과 북은 지난 71년의 세월 동안 분단으로 인해 점점 멀어져만 갔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에 원활한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판국이다. 양국 간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하고 남북은 세계 유일의 합법적으로 분단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휴전과 분단이 지속될수록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 더 벌어져가고 이념 대립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만 간다. 즉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적을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하여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71년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매우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문화의 차이도 상당하게 벌어진 상황이기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곧장 민족 전체가 통일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듯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생활이나 문화적 특징 및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그들의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공부하면 멀어졌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이고도 실천적인 태도와 방식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맞춰 나간다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며 통일이 되었을 때 이질감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면 탈북민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탈북민도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아직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탈북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통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안성의 한겨레 중 • 고등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학교로,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중 • 고 학생들은 문화 탐방과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남북한 상호 이해와 문화 다양성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 품성을 함양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상호간의 교류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랜 기간을 떨어져서 살았기에 익숙하지 않을 뿐 이상한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직까지는 '통일'이 먼 미래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남북 사이에 생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며 적극적, 주체적으로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만 한다.

1126 조민혁

혁신의 상징 카카오
골목 상권 침해 규제 당하나…



카카오의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인 카카오택시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이 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일명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이로 인한 골목 상권 침탈이 사회적으로 비판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카카오는 2010년 카카오톡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모바일 시대를 이끈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다. 당시에는 문자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 등장한 무료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카카오는 이러한 카카오톡의 성공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선물하기, 플러스친구, 이모티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게임, 카카오프렌즈, 카카오페이지 등을 기존의 카카오톡 모델에 연계시키면서 점차 사업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됐던 카카오는 그 이후 시도하는 사업 아이템마다 성공을 거두며 회사 설립 9년 만에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기며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현재 삼성, SK,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보다도 많은 계열사를 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올해 40개의 계열사를 추가하면서 카카오의 총 계열사 수는 158개로 증가하였다. 결제, 보험, 금융, 증권, 쇼핑, 웹툰, 엔터테인먼트, 게임, 퀵서비스, 꽃배달, 샐러드 배달, 미용실, 네일숍, 영어 교육, 골프장, 택시, 대리, 주차 대행 등 이들의 사업 아이템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다. 이제는 대기업의 무리에 합류한 카카오가 꽃배달과 같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는 엄격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재 정치계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까지 개입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폭풍이 불까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카카오는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기업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카카오헤어샵의 경우 지분 매각이나 카카오 상표를 떼는 방식으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카카오는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택시, 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카카오의 상생안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 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카카오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이렇듯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과 골목 상권 침탈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소상공인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걸린 문제이며, 크게 보았을 때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거나, 그 속에 정치적인 목적을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지나치게 방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1329 한예진

"세상에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가들





박환 〈기다림 2〉 / 박환과 사나고 〈기다림 3〉 / 오순이 〈내 마음의 풍경〉

만약 자신이 화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인이 된 후 시각이나 양쪽 팔, 다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다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나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작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환 작가는 동서양의 기법과 주제가 혼합된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미술 작가이다. 그는 한순간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빛조차 구별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박 작가는 미술을 포기하지 않고 시각을 잃은 채로 두 눈 대신 손끝의 촉감에 의존한 채 캔버스에 자신의 작품을 담았다. 박 작가의 작품은 주로 캔버스 위에 흙, 실, 청바지 등을 붙여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대표적인 작품은 〈기다림 2〉, 〈고향집〉 등이 있다. 특히 〈기다림 3〉은 300만 유튜버 사나고와 3d 펜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다시 작품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오순이 작가는 어렸을 때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그 후 학창시절에는 먹과 화선지의 매력에 푹 빠져 동양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 할 노력 끝에 담담하지만 열렬히 살아있는 자연의 풍경을 담은 구족화가가 되었고, 한국인 최초 중국 미술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난 왜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됐을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결국 박사 학위를 따 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던 80년대였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크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은 〈내 마음의 풍경〉 등이 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해도, 많은 작가들이 꿈을 접지 않고 계속 펴내고 있다. 불가피하게 신체가 불편해졌을 때, 분명 위의 두 작가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주변인들의 시선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던 까닭으로 두 예술가들은 입을 모아 "창작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인 셈이다. 이들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시사점을 동시에 주고 있다.

1228 최아현

2021 담화인(澹話人)

지도교사 정성종 선생님

편집장 윤예원

편집위원 양시윤 방지현 김민진 김진건 최수빈 유이서현

기자 손정민 이승현 임수현 김민 김혜진 윤수빈 이수빈

이윤우 김도빈 김민찬 유단 최현서 반희수 김어진

박소정 박준형 김서진 문은서 전동윤 정아련 김승건

김준성 박준영 김유진 김서인 김은서 박진성 이지현

정윤미 조민혁 김다예 김서휘 김예지 박민준 박준형

신주환 안도현 이슬빈 이치현 최아현 최지원 홍예진

김연우 박신영 한예진 김유빈 김규리 송현지 이선미

- 가온 학생자치신문 동아리 담화 일동 -

담화 (澹話) 기고안

안녕하세요? 담화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온고등학교 학생자치신문 동아리 '담화'에서는
매달 학교 관련 기사와 학생 칼럼을 담은 신문 <담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담화에서는 항상 가온인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리 소개, 우리 학교 학생·선생님 인터뷰, 학교 행사 소개 등 *학교 관련 기사* 나,
사회,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기사, 칼럼* 들을
주소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곳 : yewon621@naver.com